

모든 것에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영육간에 큰 축복을 받으며, 주님을 뵈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정구영 목사, 구로경찰서에서 특강

지난 20일 구로경찰서에서 '맛깔 나는 인생을 살려면'이라는 주제로 있었던 정구영 목사(전 서울여대 총장)의 특강 소식 등 국내외 뉴스.

가족의 이해와 소통을 돕는 가정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예배를 통해 올바른 자녀 양육과 온 가족 믿음 성장,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자.

“주님 은혜로 우리 가족 행복합니다”

강건해진 아내, 믿음의 가장으로 든든히 선 남편, 자신의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자녀들, 이 모든 것이 주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임종서 피택장로의 간증.

만민뉴스

제467호 2011년 1월 30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주님 사랑에 마음까지 스르르 녹습니다”

주사랑선교회 주관, 설맞이 새터민 초청 위로회



새터민들은 '설맞이 새터민 초청 위로회 및 주사랑선교회 창립 7주년 기념예배'에서 신동초 목사(사진 왼쪽 맨 위)의 설교와 예능팀들의 아름다운 공연을 통해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무치는 그리움을 감추지 못하고 눈시울을 적셨다.

새터민 김옥자(가명) 성도는 “아리랑 춤만 취도 행복합니다, 예능팀의 공연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라고 고백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새터민들은 얼굴에 함박웃음을 띠 채,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과 푸짐한 설 선물을 두 손에 들고 집으로 향했다.

주사랑선교회 회장 김갑수(가명) 집사는 “이번 행사를 위해 15일 작정기도를 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받으셔서 아주 기쁩니다. 말씀과 공연을 함께하며 제가 너무

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주사랑선교회의 지도교사 박상준 목사는 “전날까지만 해도 날씨가 매우 추웠는데 맑고 포근한 날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권능’ DVD 시청을 통해 각종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놀라며 믿음을 갖게 되었고, 모든 순서가 너무 감동스러웠다고 눈물로 고마워하셨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감동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mstory_hj@naver.com)

주님의 사랑으로 새터민들의 시린 가슴을 녹였다. 일주일 넘게 이어지던 한파특보가 해제되고 추위가 다소 누그러진 지난 1월 22일, 우리 교회 본당에서 '설맞이 새터민 초청 위로회 및 주사랑선교회 창립 7주년 기념예배'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주사랑선교회(우리 교회 새터민들의 모임) 회원과 초청된 이웃, 친지 760여 명이 참석했다. 1부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권능 사역이 담긴 '권능' DVD 상영과 연 합성결신학교 교수인 신동초 목사의 설교가, 2부에는 예능팀들의 공연이 있었다.

신 목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 뒤,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하며, 둘째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는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온 새터민들에게 참된 행복과 소망을 심어 주었다.

1부 예배 후 장인선 집사의 사회로, 예능위원회 소속 진주중찬단의 찬양과 예술선교단의 아름다운 부채춤과 무용, 새렘국악선교단의 연주가 있었다. 특히, 새렘국악선교단은 '반갑습니다'라는 북한 노래를 장새남(태평소를 개량한 북한 악기)으로 연주하여 찬사를 받았다.

2부 공연 후, 새터민들은 함께 찬양하며 우리나라 전통 민요 '아리랑'에 맞춰 예능팀들과 손을 맞잡고 흥겹게 춤을 추기도 했고, '다시 만나요'를 부를 때에는 고향에 대한 사

포토뉴스



“씩씩 씩씩 성도 사랑 이웃 사랑~” 지난 1월 23일 주일, 점심때부터 내린 눈이 순식간에 수북이 쌓이자 만민봉사대 대원들이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재빨리 비를 들고 나와 교회 곳곳을 쓸었다(우). 저녁예배를 마친 뒤에는 교회 상근 직원들이 인근 주민들을 위해 교회 앞 도로변에 쌓인 눈을 치웠다.

모든 것에 화목하라

‘모란 돌이 정 맞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성격이 모가 나면 어디저리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서로 고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격이 둥글둥글한 사람은 많은 사람과 잘 어울리며 화평한 가운데 살아가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서로 대하기 좋고 마음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화목을 이루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왜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며, 화목하게 될 때 받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1. 화목의 중요성

히브리서 12:14을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고, 마태복음 5:9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말씀합니다. 즉 모든 이와 더불어 화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화목을 이루는 사람은 영육간에 큰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 가정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서로 화목하려고 해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각자 자기 생각과 욕심, 자기의 삶, 자기 방식 등이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이 가정이 믿음 안에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정이 복음화 되었고, 가족 모임 때에 진리의 대화가 오가고 아들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 유익을 구하고, 서로 낮아지며, 이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서로 모이고 대화하니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요. 또한 서로 만나면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하고, 찬양하며, 문제가 생기면 서로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고 부모와 형제간에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에 화목할 때 기도의 응답이 오고 좋은 일들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힘쓰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잠언 16:7)



당회장 이재록 목사

2. 불화나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이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나 학교의 많은 스승을 통해 배워서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과 생각, 이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성장하면서는 여러 사람이 자기 주관에 맞추어 쓴 책자들을 읽고 감동받아서 그 작가의 사상을 머릿속에 입력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변 환경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옳다고 여겨지는 지식이나 이론을 받아들였으니 사람마다 지혜와 지식, 사고방식과 양심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모두가 똑같다고 하면 전부가 일치되어 화목을 이루는데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하나님 말씀인 진리로 신숙히 분별하여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니 모든 것에 화목을 이룹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과 이론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게 되니 고통이 끊이지 않지요.

3. 화목의 축복을 받으려면

잠언 16:7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친히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예배드리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잠언 8:17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며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사랑과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도를 좇아 순종해 나감으로 마음이 성결한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를 버리고 성결되어 참된 의인이 되는 것이므로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6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선을 행하며 덕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화목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말씀대로 행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 봉사하면 됩니다. 또한 주의 종들과도 화목을 이루어 불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과 불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불목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형제와 부모 자녀 간에, 부부와 형제간에, 이웃 간에 화목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 화목을 이뤄 만사형통한 삶을 영위하며 주를 뵈을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신

정구영 목사, 구로경찰서에서 특강



우리 교회 정구영 목사(전 서울여대 총장, 대학선교회 총지도교사)가 서울 구로경찰서(서장 이봉행)의 요청으로 지난 1월 20일 경

찰서 내 대강당에서 특강을 했다. 정 목사는 ‘맛갈 나는 인생을 살려면’이라는 주제로 여러가지 예화를 통해 경찰이라는 직업인으로서 가정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을 제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배승환 목사, 오세아니아 주 피지 선교 활발

오세아니아 주 피지에도 성결 복음과 하나님 권능이 전해지고 있다.

지난 1월 9일, 배승환 목사(시드니 만민교회)는 피지 난디 커브먼트 교회에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라는 설교를 한 후 참석자들에게 손수건(행 1:11-12) 기도를 해 주었다. 또한 14일에는 피지 상아토파 지역 커브먼트 이반 젤리칼 교회에서 목회자와 일꾼들을 대상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

케냐 나이로비 목회자 특별 모임

지난 1월 13일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목회자 모임이 정명호 목사(나이로비 만민교회)를 강사로 있었다. 이 모임은 단합과 성결을 사모하는 나이로비의 젊은 목회자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2001년 우후르 공원에서 열렸던 이재록 목사 초청 케냐 연합대성회를 기억하고 있다”면서, “패밀리 TV를 통해 방영되는 이재록 목사의 설교에 은혜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성결 복음을 배우고 싶다”며 특별 세미나를 부탁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 5536, 5615 (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팀 (02)818-7391~3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안·청년·배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휴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만 정기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2) 851-3845
070-8240-5609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가족의 이해와 소통을 돕는 가정예배

가정에서도 예배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가정예배로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가 되는 비결을 알아본다.

1

온 가족이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지름길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면 남편, 아내, 자녀 등 모두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 종국에는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이끌어 가기 때문이다.

만일 가족 중에 큰 믿음을 지닌 사람이 있다면 가정예배를 드리며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기 때문에 충성도, 하나님 앞에 심는 행함도 많아진다. 다 같이 좋은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그곳에서도 가까이 거하며 영원히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다.

가족 중 한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면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이 낙원에 들어간 사람을 새 예루살렘에 초청할 수 있다. 하지만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 면류관도 없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가족과는 너무나 다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끄럽고 민망하여 그 초청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가정예배를 통해 천국의 아름다움을 심어줌으로 온 가족의 마음에 소망을 더해주며 천국의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밝히 알려주어야 한다. 가족 구성원 모두 자발적인 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좇아 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조언하고 붙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온 가족의 영혼이 잘되어 이 땅에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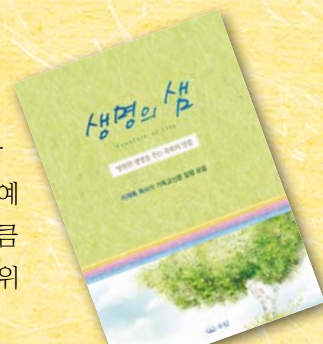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주일을 지켜야 한다. 주일 성수의 핵심적인 요소는 예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일예배 외에도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를 비롯해서 구역예배, 새벽예배, 가정예배, 심방예배 등 많은 예배가 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각자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을 절호의 기회이므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한다.

가정예배는 온 가족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해서 드리는 것이 좋다. 믿음의 가정이라면 예배 인도는 가장인 아버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떤

형식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가족 모두 스스로 동참하는 습관을 길러주며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한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인 만큼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찬양 한 곡을 부르고 성경 한 절씩 돌아가며 읽거나, 설교 혹은 신앙서적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설교, 사회, 대표기도, 찬양도 순번을 정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며 어린아이도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가정예배를 처음 드리는 가정을 위해 이재록 목사의 신앙칼럼 모음 『생명의 샘』을 추천한다.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 성령, 예배, 기도, 믿음 등 신앙의 기초적인 내용을 토대로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해 가정예배용으로 매우 적합하다.



3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의 지혜

부모는 자녀에게 가정 예배를 통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어떤 예배든 꼭 참석해야 하며,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과 늘 찬양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한 절씩 암송하도록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유해한 세상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가르치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한다. 10대가 되고 20대가 되어도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심어 주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가정예배를 드리며 신앙의 모범을 보일 때 자녀들이 그대로 배워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처음에는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색하고 쉽지 않다 해도 차츰 습관이 되면 오히려 행복하고 즐겁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 지혜와 명철이 임하고 무엇이든 잘 할 수 있는 자녀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가정의 신앙이 바로 서야 가족 개개인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다. 그만큼 가정은 신앙생활의 기본이 된다. 가정이 바로 서 있다면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해도 극복할 수 있으며, 가족의 화목이 깨어진다거나 자녀가 빗나가는 일이 없다. 건강한 가정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성경은 집사 이상의 직분을 지닌 성도들에게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딤후 3:4~5, 12).



1990년 7월 1일부터 우리 가정에 참된 행복이 시작됐습니다. 아내 전미화 권사가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하여 우리 가족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난 아내, 간절히 원하던 딸을 낳고

그날 아내는 이웃인 조양수 권사님에게 전도를 받아 난생 처음 성전 계단을 오르면서 무척 마음이 설렘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순간 “주님! 제가 이제야 왔습니다”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교회에 가기 전, 아내는 신혼여행 때 경주에서 받아온 찬불가를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행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첫 날부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아내 덕에 저는 한 주 뒤인 7월 8일, 교회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아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한 몸이 강건해졌습니다. 긍정적인 입술로 변하고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왔지요. 아들을 낳은 후 4년 동안 임신이 안 되었을 때입니다. 아내는 초신자였지만 기도를 받으면 제가 원하는 딸을 임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단에서 해 주시는 ‘환자를 위한 기도’를 믿음으로 받더니 약 4개월 후 잉태의 축복이 임했고 결국 저희 부부는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온전한 주일을 지키며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아

저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도 영적인 변화가 더디었습니다. 직장으로 인해 교회를 격주로 출석했는데 그것도 마지못해 다녔지요.

1990년 겨울, 허리 통증이 심해 예전처럼 침을 맞았는데도 낫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도움으로 당시 교구장이셨던 조혁희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지요. 겨울인데도 땀이 날 정도로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는 체험을 한 후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주일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1998년에는 ‘온전한 주일성수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를 듣고 저녁에 배까지 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임종서 피택장로 (2대대 11교구, 제일문화인쇄 대표)

저는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온전히 지키면서 담배가 싫어졌고, 금단현상 없이 끊을 수 있었지요. 또한 사업터에도 축복이 임했습니다. 매출이 늘면서 인수받을 때 안았던 부채를 상당 부분 상환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한 후에는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001년 8월에는 처음으로 하계 수련회에 참석해 뜨거운 태양 아래 화상을 입을 정도로 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얼굴이 흉할 정도로 허물이 벗겨졌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피부가 반짝반짝 빛나고 좋게 변한 것입니다. 이 일은 제게 믿음이 되었고, 그 후 남신교회 기관장, 조장 등의 사명을 더욱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교구 조장을 맡으면서 승합차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닐 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는 아내와 함께 살롬성가대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든지요.

성결을 사모하니 가정과 사업터에 복합적인 축복이 넘쳐

2010년 여름, 자녀들이 교회 일에 충성하던 중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 가족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후 주님을 사랑하며 성결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또한 사업터에는 몇 년 동안 끊겼

던 거래처나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일감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아들과 딸은 장학금을 받았고, 무용을 하는 딸은 MMTC(만민세계선교훈련원) 일본 단기선교, 에스토니아 연합성회 공연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아내는 시무권사로 취임했으며, 저는 살롬성가대 총무와 피택장로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럼 여러 모양으로 축복해 주시니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저를 대신하여 영적인 가장 역할을 한 아내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술 담배를 끊지 못할 때에도 오래 참아 주었고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 집에 들어와 화풀이를 해도 아무 말없이 섬겨주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을 많이 보았지요. 그러니 싸움이 되지 않고, 화평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으며,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 잘하고 서로 챙겨주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가 되고자

아내는 딸 보라를 잉태했을 때부터 무용과 찬양으로 세계 선교를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딸은 어렸을 때부터 찬양과 무용을 좋아했습니다. 예술중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찬양과 무용 활동을 해온 까닭에 국립전통예고에 입학할 수 있었고 대학에서도 무용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흰 돌성가대, 단비중창단에 이어 예술 선교단과 천상의 무용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요.

고집이 섰던 아들 환택이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온순해졌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사랑하지 않고 착하게 잘 자랐지요. 군 복무를 하면서 고참의 권유에도 술을 마시지 않았고 군종으로 봉사했습니다. 2004년 대학 진학을 위해 기도하던 중, GCN(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 방송 선교를 위해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는 설교를 듣고 방송 영상학과를 지원했습니다.

현재 KBS방송 전문 과정 방송연출 6개월 코스를 수료했고, 교회에서는 비디오카메라 촬영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대견한지요.

이러한 행복과 귀한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결의 말씀과 권능으로 믿음이 자라도록 이끄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4575-4194
- 서부산민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백성8D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민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2018-8410
- 새대구민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112-3017
- 대전민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8277-7999
- 동광주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민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민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천안민민성결교회 충청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1-701-0244
- 시령민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43)211-1955, 016-215-0116
- 충주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100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2동 626-1 ☎055)247-8891~2, 010-5316-2046

- 밀양민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70-7583-1537
- 진주문민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민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5214-8891
- 경주민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민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아수민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토덕동 500-5 ☎061)652-8311, 010-3592-9522
- 목포민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춘천민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 ☎033)251-1144, 010-7900-2069
- 원주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민교회 제주시 연동 2307-5 ☎064)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안원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겸재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8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6-776-101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2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